

## 서민·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이어주는 복합지원이 되겠습니다.

### - 「복합지원 2주년 성과 점검 및 2026 업무 계획」 발표 -

- ◆ 금융위 부위원장, 복합지원 이용자·상담직원을 통해 현장 목소리 청취
- ◆ 복합지원 연계분야 확대, 민·관 협업 및 지역 중심 현장 밀착 강화 추진

12월 16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6 업무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일시/장소 : 2025.12.16.(화) 14:00~16:00 / 서민금융진흥원 (서울 중구)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BNK부산은행, 토스 등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합지원은 ‘함께’하는 힘을 기반으로 하며, 한 사람의 위기를 여러 기관이 함께 감싸 안을 때, 단순한 연계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부처별로 각각 제공하던 금융, 취업, 복지 정책을 연계한 ‘복합지원’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약 21만 명의 국민께 실질적인 재기와 자활을 지원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누구나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 연계 분야를 확대하여 더욱 넓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금융사 등과 협력하여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혜택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관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정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직원·기관을 시상하면서, 정책이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감사와 함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회의에서는 우선 '25년 복합지원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복합지원 이용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약 70%가 고용·소득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고용-복지가 모두 연계되는 복합지원을 받은 경우, 금융지원 단독 이용자(非복합지원자) 비해 금융여건이 보다 개선되어 고위험 취약계층의 실질적 회복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용자의 정책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 '25년 복합지원 주요 성과 ]

- ① (연계자 수) 전년 대비 76% 증가(4.6만명('23년)→7.8만명('24년)→13.8만('25.1~9월))
- ② (연계대상자) 금융-고용 연계자 중 무직·비정규직 77.3%, 연소득 2,500만원 이하 78.4% (금융-복지 연계자의 경우 각각 67.4%, 75.9%)
- ③ (정책실효성) 고금리 대부잔액 감소율(%): 非복합지원자 33.9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자 44.4  
채무조정 3회 이상 연계자 비중(%): 非복합지원자 10.3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자 5.2
- ④ (정책만족도) 이용자 84.7% 만족, 90.1% 재이용 의사 표시

복합지원 이용자와 상담직원도 회의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햇살론 보증을 통해 다중채무를 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줄이고, 취업 연계까지 받은 사례, 다자녀가구에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복지 연계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지원을 받은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참석자들은 복합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을 표하면서, 더 많은 혜택과 지원 등 개선 필요 사항도 언급했다.

### [ 복합지원 상담 사례 ]

#### 사례 1: 30대 / 금융+고용+복지 연계

- 미취업청년, 장애 / 연이은 질병과 실직으로 은둔 생활, 생계비 등 부담
- 지원 (금융) 신속채무조정(청년), 청년금융생활상담 지원 + (고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 (복지) 긴급복지지원금 지원 및 청년월세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장애등급 상정

#### 사례 2: 50대 / 금융+복지+법률 교육 지원

- 한부모 가장(다자녀) / 월세와 교육비 부담에 어려운 상황,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지원 (금융) 햇살론15 지원 + (복지) 기존 한부모가족 혜택에 더하여 전기요금 감면 혜택 (법률)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을 통해 금융 사기 위험 대비 지원

#### 사례 3: 20대 / 금융+고용+복지 연계

- 근로장학생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낸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자 안내를 받고 고용복지+센터 방문
- 지원 (금융) 햇살론유스 지원 + (고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복지) 청년임대주택과 임대보증금 이차지원 제도 안내

이러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026 복합지원 업무계획**을 마련하였다.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복합지원이 단순한 서비스의 연계를 넘어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범위를 확장하고 협업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첫째, **복합지원 연계 분야가 확대**된다. 고용·복지 지원에 대한 지속 강화와 함께 공공의료, 노후, 소상공인 분야 등을 추가한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와 협업하여 의료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지원(예: 불법사금융예방대출, 1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과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의 연계**를 확대하여 **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노후 관련 전문 재무상담** 등 노후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하여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지역 중심의 현장 밀착형 복합지원**을 확대한다. '25년 4월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전북도로 확대 및 시범 운영된 **‘찾아가는 복합지원’**을 더욱 **고도화**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밀착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BNK부산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금융과 서민금융이 물리적으로 결합한 서민금융센터**를 개소하여 지역 주민이 한 곳에서 상담, 은행대출,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고용, 복지 등을 하나로 묶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찾아가는 복합지원’**을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여 **지역 기반 복합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및 금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여 복합지원 상담 및 금융교육 등을 제공

셋째, 이용자들이 **복합지원 서비스를 쉽게 접근**하고,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추진한다. 핀테크 기업인 **토스의 모바일 앱에서 복합지원을 바로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복합지원 이용자의 실질적 재기지원이 가능하도록 **BNK부산은행과 협업**하여 **복합지원 전용 여·수신 상품**을 개발한다. 복합지원 연계 후, 서비스 이용자의 안정된 금융생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7~9%대 금리의 대출 상품과 우대금리가 적용된 월 납입금액이 20만원 이하인 소액 적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복합지원 환류 및 상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연계 네트워크를 확충한다. **고용복지+센터와 서민금융센터 간 정기적인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지원 사례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회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복합지원은 지난 2년간 **여러 부처와 기관들의 노력**으로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하는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이에 더해 ▲ **김기철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취약계층이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금융과 복지의 상호 연계를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 **허윤선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팀장**은 부처 간 협업의 성과가 복합으로 해소를 통한 **취업 성공 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발언하였다. 그밖에 참석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서 실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말씀

[별첨 2] 복합지원 2년 성과 점검 및 2026 업무 계획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장	전은주 (02-2100-1652)
	복합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강우정 (02-2100-1655)
<공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책임자	과 장	허윤선 (044-202-7190)
		담당자	사무관	윤정희 (044-202-7375)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우경미 (044-202-3120)
		담당자	서기관	한두희 (044-202-3123)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기철 (044-202-3160)
		담당자	사무관	권오경 (044-202-316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재원 (044-202-2430)
		담당자	사무관	이하림 (044-202-2515)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책임자	과 장	조승아 (044-202-2530)
		담당자	사무관	정기모 (044-202-2540)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노정훈 (044-202-3370)
		담당자	사무관	나세정 (044-202-3364)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충현 (044-202-2710)
		담당자	서기관	이관형 (044-202-2706)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책임자	과 장	박성민 (044-205-3101)
		담당자	사무관	김아영 (044-205-3122)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제도약과	책임자	과 장	장상만 (044-204-7850)
		담당자	서기관	오준영 (044-204-7329)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희 (051-888-3150)
		담당자	팀 장	이미경 (051-888-3193)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영복 (062-613-3710)
		담당자	팀 장	장안숙 (062-613-3730)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	책임자	과 장	신미애 (063-280-3280)
		담당자	팀 장	오태용 (063-280-3793)
	서민금융진흥원 기획조정부	책임자	부 장	장지현 (02-2128-8015)
		담당자	팀 장	오병철 (02-2128-8022)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지원기획부	책임자	부 장	김금석 (02-2128-8305)
		담당자	팀 장	한경아 (02-2128-8321)
신용회복위원회 복합지원부	책임자	부 장	권도형 (02-750-1091)	
	담당자	선 임	문영민 (02-750-1074)	

